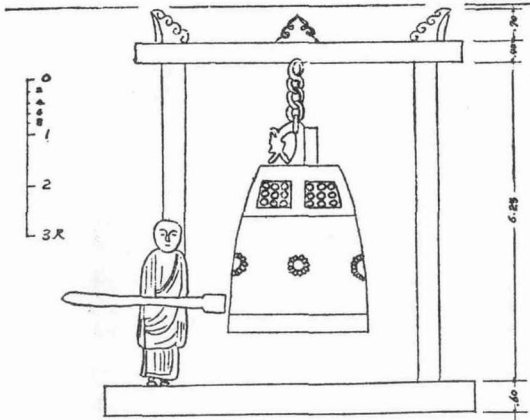


고撞木을 잡고 있으며 木架兩柱上에 걸친「보(樑)」의 中央에는 鐘의 特徵을 보여주고 있으니 卽頂上으로부터 甬筒이 있고 龍鈕에는 鐵索을 끼었으며 上帶와 下帶가 있고 乳廓內에는 九乳가 乳廓間의 鐘腹에는 複瓣蓮花의 圓形撞座가 彫刻되었다. 이 鐘의 總高는 四尺五分, 身高三尺三寸, 上徑一尺六寸, 下徑二尺七寸七分이며 僧形人物의 高는 三尺三寸五分, 木架의 高는 六尺二寸五分이다.

다음에 逸名塔碑는 磨崖鐘에서 東東北方 約八百米되는 곳에 新築된 安養寺에서 다시 後山을 조금 올라가면 「거북발」이라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龜趺와 浮屠(地台石, 中台石, 屋蓋石)만이 現存가 있다. 이에 대하여서도 上揭한 資料 二四番에 「石碑龜趺ハ長サ十尺幅七尺高サ三尺五寸石碑ハ粉碎セラレテ破片ノ一部ヲ存ス傍ニ倒レタル石燈一及廢井一アリ里人ハ佛谷ト稱シ寺利アリシト傳フレトモ寺名等不詳」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石燈이라고 한것은 浮屠를 誤認한듯 하다. 石碑는 現在 碑身과 螭首가 없고 龜趺만이 남아 있고 그 周邊에 碑身細片이 散在하고 있는 데 住



民에 依하면 韓日合邦初에 碑身을 破壞하였다고 한다. 이 碑에 대하여 「大東金石書」에는 安養寺七層塔銘이라하여 一枚의 拓本만을 실리고 있다. 다시 「大東金石目」에는 「安養碑 在 衿川三聖山 安養寺七層塔銘 尙書金富徹 文李元符書 南宋高宗紹興元年 辛亥立麗仁宗九年也」라고 있으며 「東國輿地勝覽」衿川縣佛宇 安養寺條에 「在三聖山 寺之南 有高麗太祖所建七層觀塔 金富 賦撰碑 字鐵……」라 하여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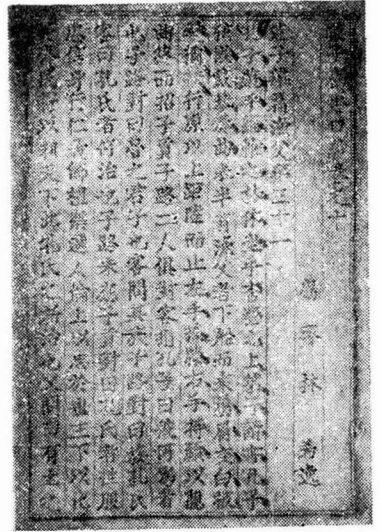
上에 有名한 安養寺七層觀塔과 이 碑銘을 關聯시키고 있다. 그러나 果然이 龜趺가 그에 該當되는 것인지 疑問되는 바이다. 그런데 이 龜趺에서 碑片「皆」一字와 「則」二字를 發見하였는데 中「則」是 「師」가 아닌가 하여 처음보는 碑陰記片으로 推定되며 「皆」는 文體와 크기가 「大東金石書」의 그것과 同一한데서도 이 龜趺가 安養碑의 것임이 를 疑없을 것이다. 다만 그 앞에 浮屠가 建立되고 있는 點과 「大東金石書」에 보이는 碑文中에 「姓高氏東州伊川人也父……」으로 보아 高麗太祖의 七層觀塔을 위한 塔碑가 아니요. 그 當時 此寺의 高僧인 「俗姓高氏」를 위한 塔碑이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이곳 七層觀塔은 李朝初期까지 남아있었을 것인데 朗善君時代에 이르러 上記한 바와 같이 「字缺」이라고 한 이 碑가 有名한 觀塔과 잘못 關聯을 맺은듯 하다. 이 浮屠와 龜趺의 彫刻手法 또한 이 碑의 建立年代인 高麗中期에 推定되는 作品으로 보인다. 龜趺地台石의 橫七尺二寸, 縱九尺四寸五分, 高五尺七寸三分, 長八尺二寸이며 碑座外廓의 幅一尺八寸四分, 橫幅五尺七寸五分, 深一尺二寸八分이다. 浮屠의 地台石幅四尺三寸五分, 高五寸六分, 複蓮座台 幅三尺二寸, 擘石面接部幅一尺九寸五分, 全體高一尺四寸二分. 中台石幅三尺三寸五分, 高一尺, 屋蓋石直徑四尺, 高一尺二寸七分이다. 龜趺의 方向은 西向인데 그 周圍에서도 高麗時代의 瓦磚片이 散在하고 있다. 上記한 磨崖鐘의 年代는 高麗初期로 推定되는 바 今後이 遺址一帶는 觀塔址와 더불어 調査對象이 될만 하다.

第一卷 第五號 通卷 五號

庚子本 莊子虞齊口義

李 謙 魯

지난 九月 下旬頃에 庚子字本 莊子虞齊口義 零本一冊을 入手秘藏하였 다. 이 庚子字는 李朝歷代帝王中에서 가장 賢明하신 世宗大王二年庚子—— 同三年辛丑에 第二回로 鑄造한 銅活字인데 世宗十六年 甲寅에 第三回로 甲寅字ハ銅V를 鑄造할때까지 約十二年間 使用한 活字이다. 따라서 五



庚子字本 莊子齋義

百餘年後인 오늘에  
는 이 庚子字로 印  
출된 冊은 매우 稀  
貴함으로 國寶的인  
文化財로 認定받게  
됨 되었다. 이곳에  
公開하는 莊子口義  
는 全十卷中에서 卷  
之九、十、後序、跋、  
新添莊子十論莊子音

釋 그리고 끝에 春亭 卞李良의 跋文이 添付된 最終卷이다. 外形은 縱이 二九〇미리, 橫이 一八七미리 匡郭은 縱이 二三五미리, 橫이 一五五미리, 行間이 一三미리 程度이며 每面 十一行, 每行 二十一字 註는 雙行 二十一字 四周雙邊이고 行線이 있으며 黑口에 黑魚尾本이다. 卷之九 첫 上餘白에 「靜之齋」라는 四角印과 그림 第二行間에 「內賜」라는 長方形 印 또 그 아래 차례로 楊山世家, 虞堂趙重×라는 印과 卞下部에는 經筵 이라는 三·八미리 크기의 四角印이 各各 朱印되어 있다. 經筵과 內賜印이 있는 點으로 이루어 當初에 經筵에 備置하였던 藏書를 어느 重臣에게 下 賜된 것으로 推測되며 또한 楊山世家와 趙重×이라는 印章은 한 때 楊 州趙氏某가 保管한 事實이 있음을 알겠으며 『柳谷朴掌令之冊』 또는 『冊主密城後人朴』이라 墨書한 밑에 手結까지 있으며 跋文 末尾餘 白에도 『冊主柳谷朴生員』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密陽朴氏某가 所藏하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五百餘年間을 轉轉하다가 收拾되었다는 것은 國家文化財를 保存하는 見地에서 千萬多幸한 일로 생각된다. 參考로 春亭의 跋文을 全載한다.

鑄字之設, 可印群書, 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 有未 盡善者, 印書者, 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 殿下發於宸衷, 命工曹參判臣李藏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 益精, 左代言臣鄭招等, 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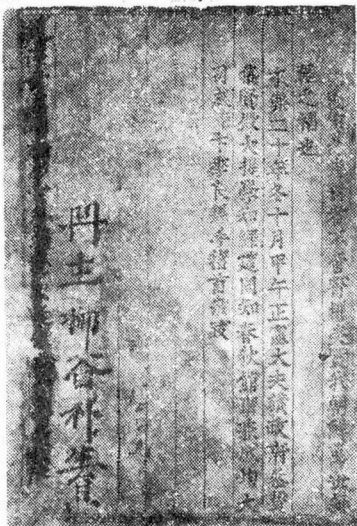
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 我 光孝大王作之於前, 今我

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 不學, 文教之興, 當日進, 而世道之隆, 當益盛矣, 視彼漢唐人, 主規 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 福也

永樂二十年冬十月甲午正憲大夫議政府參贊集賢殿大提學知經筵同知春 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臣卞李良拜手稽首敬跋

要約하면 太宗三年癸未(永樂元)에 처음으로 鑄造한 活字(癸未字)가 아름답지 못하고 印刷하기가 不便함으로 世宗二年 庚子(二四〇)十一月에 李藏에게 命하여 金益精 鄭招 등의 監督으로 새로 活字(庚子字)를 鑄造하기 始作하여 七個月만에 完成됨으로써 印出 못 할 冊이 없게 됨으로 缺이 없어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니 文教와 世道가 날로 進興할 것 이라 하였다. 따져 보면 太宗三年(二四〇三)에 癸未字를 最初로 鑄造한 後 一七年만인 世宗二年(二四二〇)十一月에 庚子字를 新鑄하기 始作하여 다 음해 世宗三年五, 六月頃에 完了 되었으며 이 莊子口義는 完了된 다음해에 刊行되었다. 그리고 跋文에서 特히 留意하게 되는 點은 恭惟我 光孝 大王——으로 光孝라는 尊號를 使用한데 反하여 다른 여러 文獻에 실린 庚子字略史나 跋文

에는 舉皆가 恭定이 라는 尊號를 使用한 點이다. 이것은 光 孝는 生存時에 쓰던 尊號이고 恭定은 昇 退後에 中朝에서 내 린 諡號이기 때문에 生存時에 刊行되는 冊에는 光孝를 使用 하고 昇退後에 刊行



同本 跋文

되는冊에는恭定이라는諡號를使用한 것이 아닌가推測하게된다. 그러나이莊子는太宗이昇遐(世宗四)한지五個月後에印出完了된冊임에도不拘하고光孝라는尊號를使用하였으니위의말과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면依例히諡號(恭定)는昇遐後에稱呼하는 것이지만光孝라는尊號는生存과死後의區別이 없이使用할 수 있었던 것인가의심스럽다. 이點은여러분의敎示를 바라가지 않는다. 다음에紙質은 빛깔이 날린黃色葉煙草빛과 같고 넓이三〇미리程度의 발자리가 기리로 매우 희미하게 보이는 장도若干있으나大部分은 발자리가 전연 없고牛毛와 같은極細한線이 올라온 나무결 모양으로 가로진나간 것이 보이며 매우 얇고纖弱하여唐紙가 아닌가疑心하였으나金斗鍾博士의說明에依하면이 종이는옛날咸鏡道地方에서 귀리질으로 만들내었던藁精紙의一種이라고 하였다. 끝으로多年間珍書稀本을取扱한金孝植氏에依하면庚子字跋文이添付된庚子字本은五十年生에過眼한 것이이莊子와資治通鑑綱目二種뿐이라하니至極히稀貴하다고 할 것이다.

### 『金吾詩帖』의 謙齋畫

#### 弼雲臺京師春色圖

崔 泳 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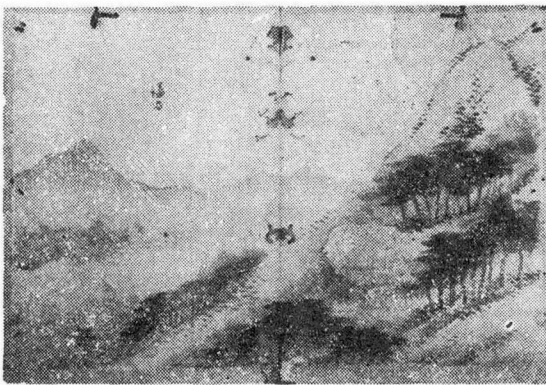
서울大學校 博物館長 李相伯先生 舊藏中에 「金吾詩帖」이란 詩畫帖이 있다. 이것이從來로 흔히 巷間에 돌아다니는 金吾帖이라는 것과는多少 다른 內容인 것과 그 初葉 序文 다음에 붙어 있는 그림이 謙齋의桃花가 方暢한 서울市를 俯瞰하는 것이므로 좀 注意하여 商考하여 본즉, 그것이 肅宗末期에 禁府에 入仕한 사람들이 親睦과 紀念을 위하여 春三月 好時節에 (三月 十七日) 서울 西郊의 名勝地 弼雲臺에서 雅會를 열고 揚叙清遊한 光景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沈師周의 序文에 依하면 「金吾之有契帖古也」라고 하고, 「新進者 必畫諸僚公服開坐之狀 書其姓名年甲 作爲十帖 以備諸僚之各取其一 善相與周

旋一府情志既治 而人生之離合無常 官守之去就難知 則宜有是帖 以志他日之相思也」라고 한 것이 우리가從來로 巷間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所謂 「金吾帖」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從來의 그러한 「金吾帖」은 「以其事不雅 畫亦無可觀 往往棄諸牀几之側 爲兒童戲玩之具 而纔去府 日月稍易 則帖之存者 十無一二 而諸僚之姓氏年紀 有不能記者」이었던 實情으로 우리가 過去에 往往 接見한 것들도 例外없이 穢拙한 畫像으로 보잘 것이 없었고, 正事實 公服을 입고 開坐하는 形狀을 그린다고 해야, 近年의 公務員 執務狀態를 紀念像影하는 것과 같아서 「其事不雅」라는 것이 當然하다. 그러므로 이 會合의 主張者인 沈師周는 그때 李宜伯이 仕官해서 府中에 新入하여 온 機會에 그러한 無味乾燥하고 低俗한 前例를 打破하여 勝景地에서 携酒賦詩하고 「畫其地 傳其詩」하는 것을 提唱하여 一同의 贊成을 얻어 新仕者 李宜伯이 雅會를 主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一行중 當時의 禁府入仕者 十名은 沈師周聖都



謙齋畫